

물콩팥증으로 발현한 이식후림프증식성장애 1예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과교실²

이용구¹ · 박준성¹ · 이창화¹ · 김근호¹ · 박찬금² · 강종명¹

A Case of Post-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 Presenting Hydronephrosi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

Yonggu Lee¹, Joon-Seong Park¹, Chang-Hwa Lee¹, Gheun-Ho Kim¹, Chan-Gheum Park², Chong-Myung Kang¹

Departments of¹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

Departments of²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

서론 : 이식후림프증식성장애 (PTLD)는 신장이식 환자에서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Epstein-Barr virus (EBV) 감염과 연관한 B-세포의 증식이 특징이다. 따라서 PTLD는 전신 질환이지만 간혹 이식신 가까이 국한하여 발생하기도 한다. 연자들은 이식신 문 (hilum) 주위의 종괴로 발현하여 물콩팥증을 유발한 PTLD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: 신장이식 후 안정적으로 지내던 59세 남자 환자가 혈청 크레아티닌이 3.5 mg/dL로 상승하여 입원하였다. 조영증강 없이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이식신의 물콩팥증이 관찰되어, 요관 협착으로 진단하고 이식신의 요관에 이중-J-도관을 삽입하였다. 이후 혈청 크레아티닌이 2.2 mg/dL로 일시적 감소 소견을 보이다가, 1주 후 3.5 mg/dL로 다시 상승하여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. 그 결과, 물콩팥증이 진행된 소견과 함께 문 주위에 요관을 압박하는 고에코의 종괴가 관찰되었다. 경피콩팥창침술을 시행한 후 혈청 크레아티닌은 1.7 mg/dL로 감소하였고, 종괴에 대해서 경피 초음파유도 생검을 시행하였다. 조직소견에서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로 진단하였고, EBV LMP-1 면역염색에 양성인 세포가 발견되었다. 이식 전 환자는 EBV 음성이었다고, 신장 공여자는 EBV IgG 항체가 양성이었다. Cyclosporine을 감량하고도 종괴 크기는 변화가 없어 항-CD20 항체 (rituximab), 항암화학요법 (CHOP) 및 방사선치료 (4000 rad for 4 weeks)를 병행하였다. 이후 완전 관해되어 경과 관찰 중이다.

결론 : PTLD는 전신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신 문에 국한하여 물콩팥증으로 발현하기도 한다. 이식신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PTLD는 이식신 기능 상실을 초래할 위험이 높지만, 조기에 적절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전 관해와 함께 이식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.